

# 신뢰로 크는 나무

고객의 신뢰를 가장 중시하고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서석유화학은  
인류의 「생명」과 「삶」에 공헌하겠습니다.



## 주요생산품목

아크릴로니트릴, 청화소오다,  
아크릴아마이드, EDTA, 유안비료, 아세토니트릴

# Responsible Care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화학산업의 약속 Issue No + 41

**Intro** 2018년 하반기 ICCA RC 및 CP&H 리더십그룹 회의 참가

**Special**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의 미래

**Issue**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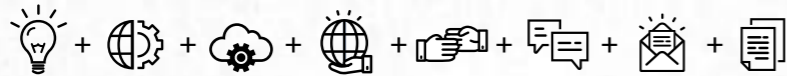
**Members Focus** 회원사 마당

**RC Activity** 사무국 주요 활동 소개





# Responsible Care <sup>2018</sup> Issue No + 41



통 권 : 제 41호  
 발행인 : 심홍섭  
 발행처 : 매경바이어스가이드  
 발행일 : 2018년 12월 14일  
 전 화 : 02-3668-6174  
 E-mail : rcmaster@krcc.or.kr  
 홈페이지 : <http://www.krcc.or.kr>

## CONTENTS



<b>Intro 03</b>	2018년 하반기 ICCA RC 및 CP&H 리더십그룹 회의 참가
<b>Special 07</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의 미래
<b>Issue 13</b>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b>Members Focus 19</b>	회원사 마당
<b>RC Activity 25</b>	사무국 주요 활동 소개
<b>Calendar 28</b>	2019년 한국RC협의회 주요행사 안내
<b>회원사 리스트 29</b>	

Responsible Care®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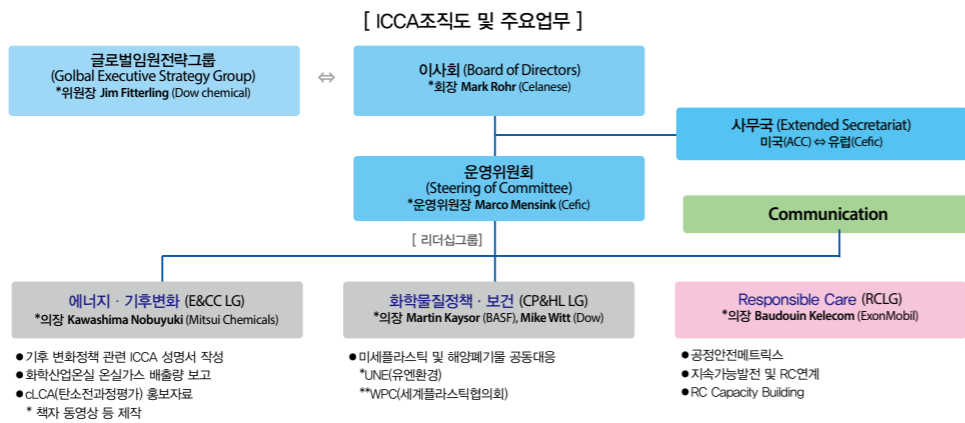






## 2018년 하반기 ICCA RC 및 CP&H 리더십그룹 회의 참가

2018년 하반기 국제화학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 이하 'ICCA') 화학물 질정책·보건(Cheical Policy&Health, 이하 'CP&H') 및 RC 리더십그룹 회의가 Responsible Care New Zealand('RCNZ') 주최로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질랜드 Lakeside Novotel Rotorua 호텔에서 20여 개 회원국 담당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ICCA 산하에는 에너지·기후변화, 화학물질 정책·보건, Responsible Care 3개 분야에 리더십그룹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리더십그룹에서는 분야별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반기에 1회씩(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번 뉴질랜드 회의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던 리더십그룹회의와 달리 CP&H와 RC 리더십그룹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CP&H 리더십그룹 회의는 전세계 46개국 ICCA 회원단체, RC 리더십그룹은 전 세계 62개국 RC 단체가 참석 대상이다. ICCA 회원 단체 대부분은 RC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안전 공유 및 논의를 통한 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RCLG 및 CP&H 리더십그룹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안건을 소개 하고, 우리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주제 ① 국별 단체 - RC 글로벌 헌장(안)

RC 리더십그룹에서는 국별 RC 화학단체를 대상으로 RC 글로벌 헌장(Global Charter)을 작성하여, 향후 회원국별 화학단체장의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RC 글로벌 헌장은 기존 화학기업 CEO 대상의 RC 글로벌 헌장 내용에 RC Fundamental Features(기본 특징)를 추가하였으며, RC 활동 강화를 위한 RC 글로벌 헌장 이행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RC 글로벌 헌장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일부 참가자는 현재까지 작성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검토의견

- ① 최근 RC 활동은 화학기업의 환경·안전·보건 분야를 넘어 소비자 고객 관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 반영 필요
- ② 정부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별 및 화학기업별 RC 성숙도 차이 고려
- ③ RC 이행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RC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을 감안하여 헌장 초안의 보완과 구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RC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31일 까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검토의견 취합 후에는 2019년도 상반기 ICCA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글로벌 헌장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ICCA 차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 주제 ② KPI Metrics(지표) TF 보고

ICCA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화학산업협회(ACC, America Chemical Council)는 매년 RC 회원국을 대상으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데이터를 취합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데이터 취합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데이터 취합 추진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금년 5월에는 ICCA KPI팀에서 웹사이트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6월에는 사용자 설명서 업데이트 및 KPI 웹사이트 완성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웹사이트를 오픈하여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였다. 참고로 차기(2017년) 데이터 취합 시에는 신규 30여 단체의 데이터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부재 단체	향후 데이터 의무제출 단체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타이완, 태국, 칠레,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미얀마	(2019) 중국 (2020) 베트남, 이집트,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RCLG단체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권장 기본 데이터세트를 일전에 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데이터세트의 구성을 살펴보면, RCLG와 GPS(Global Product Strategy,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제품 개발전략)는 RC회원단체에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KPI의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 취합 결과를 살펴보면 RC국별단체에서 안전·보건, 황/질소 화합물, 이산화탄소 직접배출 부문의 데이터 제출 참여가 높은 반면, 운송사고의 경우 40%이하의 회신률로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 권장 기본 데이터세트 ]

일반	KPI(4)			
	안전 및 보건	환경	운송	자원 이용
국가화학산업 - 업체 수 - 고용자 수 - 연간매출 금액	사망자 수 - 고용자 수 시간부상발생률 - 고용자 수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 총량 - 직접배출	전체 - 총 사고 횟수 - 파이프라인(추가)	에너지사용 물 소비
단체회원사 - 업체 수 - 고용자 수 - 연간매출 금액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화합물 황화합물		
RC회원사 - 업체 수 - 고용자 수 - 연간매출 금액				

RCLG단체 전체는 2020년까지 ICCA에 공정·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12개 단체가 시범적으로 502건의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였으나, 추가로 RCLG단체를 대상으로 공정안전 보고 방법 교육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공정안전 사고의 경우 RCLG단체에서 자발적 보고를 처음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KPI성과보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데이터 제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동시에 데이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없는 RCLG회원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 ③ Cefic Rejuvenation(회춘, 원기회복) 프로젝트 및 RC성숙도 모델**

Cefic(유럽화학산업협회)은 보다 많은 유럽 화학업체가 자발적이고 성과 기반의 RC관리체계에 참여와 화학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회복 기여를 위해 Rejuvenation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RC를 국제표준 및 지속가능성 원칙에 연계하고 지역 RC이행 지원과 보다 조화로운 접근 방식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RC성숙도 수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통합(Unify), 조화(Harmonize), 간소화(Simplify), 강화(Strengthen), 내재화(Engrain), 권한부여(Empower), 공유(Share), 개선(Improve)이다. 모든 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자 친화적이며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RC관리체계 및 자체평가 툴 시스템을 마련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RC고유 특징을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RC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발적 자체평가, 중소기업 대상 확대, 개선 인센티브 부여, 결과 공유, 우수사례 벤치마크는 반영되었다. 하지만 3차 검증, 인증 과정,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저성과자 도피 등은 성숙도 수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성숙도 수준 정의 ]

Level 1	준수	법규 준수 및 약속
Level 2	지속적인 개선	계획 및 이행 → 즉각적 행동
Level 3	우수 유지	계획, 이행, 점검, 행동 → 전체 관리시스템 접근
Level 4	홍보	개선 성과 이행 완료, 향상된 효율성, 우수이행사례

이 프로젝트는 작년 Cefic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금년 5월 예산 승인 후 컨설팅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회원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최종 검증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Cefic에서는 향후 RC Rejuvenating 프로젝트 결과를 ICCA 내 화학업체·협회와 공유 할 계획이다. 한국RC협의회는 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회원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주제 ④ ICCA 제4차 유엔환경총회(UNEA-4) 참가 대응**

ICCA리더십그룹에서는 유엔환경총회(UNEA-4)참가 대응을 위한 향후계획 및 활동을 소개하였다. 제4차 UN환경총회가 2019 나이지리아 나이로비에서 3월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ICCA에서는 금번 회의에서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해양플라스틱 등) 관련 새로운 국제 조약 협상 등의 규제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플라스틱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외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ICCA CP&H리더십그룹에서는 회원국별 정부 환경담당 부서 내 의사 결정권자를 파악하고, 향후 ICCA차원의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여 ICCA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대응지침서를 공유할 계획이다.



ICCA는 UN환경총회 결의안 협상 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개최 이전 회원국별 정부를 대상으로 ICCA 입장을 공유하고 우려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ICCA Advocacy TF에서는 협의사항을 운영 위원회와 공유할 안전 목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논점을 마련하는 것보다 회원국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주제와 우리 산업 내에서 일치된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제 구분이 필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ICCA에서는 만장일치로 UNEA-4에 대표단 파견을 결정(5개 좌석)하였으며, 후속으로 참가 대표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RC협의회에서는 RC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APRCC(제16회)개최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RC협의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APRCC 개최배경, 일정 및 장소, 주제 등행사 개요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RC회원단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동 회의 참가와 발표자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한편, APRCC개최 기간 동안 2019년 하반기 RCLG리더십회의 한국 개최 희망을 표명하였다. RC회원단체 참석자는 APRCC와 연계한 RCLG회의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모로코와 스리랑카에서도 RCLG회의 개최를 희망함에 따라 최종 개최지는 공식 절차를 통하여 내년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업의 미래

이윤정 연구원 |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2015년 9월 25일, 뉴욕 UN 본부에 160여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UN은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15년의 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에서 발표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가 현재의 발전 방식으로는 지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환경개발회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의 실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목표와 계획들을 마련하였다.

2000년도에는 빈곤과 저개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전 지구적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다. 8개의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MDGs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15년간의 국제사회 노력으로 빈곤퇴치, 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환경오염, 불평등, 양극화 등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며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왔다.

SDGs는 MDGs의 반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었다.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개발도상국에 치우쳤던 한계를 넘어 지구촌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로써 국제사회에 화두를 던진 SDGs는 2016년 지속가능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15년의 긴 걸음을 내디뎠다.

## ● 모두가 동참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측면인 사회적 포용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Leave no one behind(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를 원칙으로 하는 SDGs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한 보편적인 목표이며 전 지구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진일보한 청사진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MDGs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목표 달성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 그림1.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이미 국제기구와 개발은행, 국제 NGO 등은 SDGs 프레임에 따라 전략 및 사업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CC(국제상공회의소),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도 다양한 정책수단과 경험을 활용하여 SDGs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도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자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위해 SDGs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SDGs 취지에 맞게 K-SDGs 수립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세부목표와 이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 SDGs와 기업 비즈니스

그런데 이 SDGs와 기업은 관련이 있을까? 1번 목표가 빈곤 퇴치, 2번 목표가 기아 종식으로 시작되는 SDGs가 얼핏 보기에는 대의적 차원의 이슈로 국제기구가 해결해야 할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 역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빈곤과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생태계가 망가지면 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은 기업이 개도국을 도와주거나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동참하고 실천해야 하는 전 지구적 의제인 것이다. SDGs가 발표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1-2년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슈가 아닌, 2030년 혹은 그 이후에도 통용될 보편적 이슈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UN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2013년 59억 명에서 2050년 82억 명으로 증가하고 흔히 BoP(Bottom of the Pyramid)라고 불리는 1인당 연간 소득 3천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인구 역시 65억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만약 기업이 개도국의 보건, 교육, 빈곤 등의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다면 미개척, 대규모 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제품 구매력이 증가하면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SDGs 관점에서 전 세계 경영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한다면 기업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기업의 비즈니스와 SDGs 목표를 연계한 사례 ]

<p>Philips SDGs 목표3. 건강과 복지</p> 	<p>Philips SDGs 목표3. 건강과 복지</p> 
<p>Coca-Cola SDGs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p> 	<p>Coca-Cola SDGs 목표7. 깨끗한 물과 위생</p> 

실제로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Unilever)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기업의 성장과 선순환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한 생활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이라는 경영전략 아래 '10억 명 이상 인류의 건강과 웰빙 증진', '제품 생산·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절반으로 감축', '수백만 명의 생계 개선'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약한 위생관념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개도국에서 지금까지 총 6억 명에게 건강 및 위생 교육을 실시했고 이는 실제로 질병예방 및 사망률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 만 아니라 교육에 활용된 비누, 치약, 정수 필터 등의 유니레버 제품은 지역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유니레버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난감 회사 LEGO는 '양질의 교육', 석유회사 BP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음료회사 Coca-Cola는 '깨끗한 물과 위생', 헬스케어·생활가전 업체 Philips는 '건강과 복지' 등 자사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SDGs 목표를 정하고 관련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하는 기업

지난 7월 발간된 WBCSD/DNV·GL의 보고서<sup>①</sup>에 따르면 43개국 250여개 기업에 설문한 결과, 78%가 17개 SDGs 목표를 자사의 전략에 맞춰 우선순위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43%는 SDGs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있으며, 33%는 리스크 분석에 SDGs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 세계 기업들이 SDGs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자사의 비즈니스에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SDGs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SDGs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발간된 보고서 중 MDGs를 언급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SDGs가 발표된 이후 2016년 국내에서

① Business and the SDGs: A survey of WBCSD members and Global Network partners





발간된 보고서 중 SDGs 내용을 포함한 곳은 32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8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SDGs를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적 단계에 있는 기업도 있지만 SDGs 17개 목표와 기업 활동의 연계점을 찾고 구체적 이행 목표를 수립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화학산업연합회 주최로 SDGs 동향과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이 개최되는 등 산업별로 SDGs 참여를 촉구하고 이

행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어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예정이다.

● 화학산업, 인류의 미래를 그리다

SDGs가 채택되면서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졌다. 앞으로 이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활동과 프로젝트에 재원이 모이고 경제적 인센티브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SDGs를 피상적 구호가 아닌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DGs가 전 세계 패러다임이 되면서 국제 사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투자자, 시민단체,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비즈니스에서 SDGs를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거래 조건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활동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하나이다. 이제는 기업이 자사의 비전이나 전략과 연계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지속가능경영을 외치거나 구체적 목표 없이 막연하게 SDGs를 지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SDGs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과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함께 목표 달성을 논의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화학산업은 이제 SDGs라는 거대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맞이했다. 일상 생활용품부터 음식,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화학산업은 SDGs 17개 목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WBCSD는 '화학산업 SDGs 로드맵(Cheical Sector SDGs Roadmap)' 보고서를 통해 화학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SDGs 목표 10개를 우선순위화하였고, 제품(product)뿐만 아니라 생산공정(process), 그리고 협업(partnership) 과정에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그림2. 화학산업이 주목해야 할 10가지 SDGs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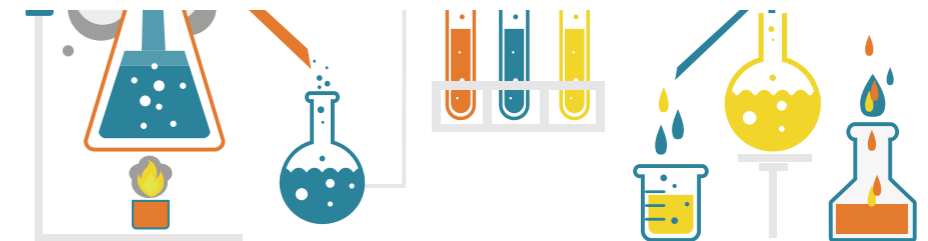
Priority SDGs for the sector



각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이나 활동 지역 등에 따라 관련 목표와 범위, 관여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화학기업들 모두가 SDGs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큰 항해에 동참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 인류에 가져올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다.

SDGs는 그동안 화학기업이 해오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전에도 많은 국내외 화학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왔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각 이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닌, SDGs를 경영 전반에 통합하여 원료 채취부터 제조, 가공, 포장, 최종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지구가 지속가능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화학기업이 SDGs 패러다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발 더 앞서 나가며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한다. 🌱





한국RC협의회는 2018년 11월 13일(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화학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였고, 정부, 지자체, 학계, 연구계, 화학업계, 시민단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은 화학산업이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관련한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화학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은 '지속가능발전분과'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에 주어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분과는 2015년 UN이 채택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정부, 산업계 등 각 주체별 이행방안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공유하였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분과는 환경오염 및 안전문제 등으로 발행하는 화학기업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Session 1**  
지속가능발전분과 주요내용



● 이재혁 교수(명지대학교, 분과장) 화학산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토론 및 발표를 한 경험은 많지만, 지속가능발전포럼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된다. 기업은 CSR 활동이 좋은 것은 알지만 기업의 이윤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2030년까지 CSR과 SDG와 같은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가치체인 상에 역량이 있으며 그 역량에 따른 성적표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좋게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국민연금(약 460조)의 약 20%를 국내에 투자, 향후 SDG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에 차별적 투자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박백수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산업은 한국RC협의회를 중심으로 2000년 초기부터 법령 준수를 뛰어넘어 자발적인 RC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환경·안전·보건 활동에도 불구하고 RC 활동이 여전히 한정된 정보를 제한된 대상에 공유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속하지만,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SDG를 어떻게 연계할지 또는 국내 환경안전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산업이 ①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통해 산업을 선도하고, ②선도기업 중심의 기술·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환경·건강·안전 확보 활동 지원 및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사회에 공헌을 확대하고, ③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해 공헌 촉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정부와 기업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포럼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향후 포럼을 통해 화학산업의



강점 및 역할에 대한 비전과 실천계획을 사무국에서 수립해 주시길 요청한다.

- **이은경 실장(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SDG 출범은 산업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계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글로벌 화학기업과 달리 국내 화학기업은 왜 관심이 없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화학기업들도 RC Guiding Principal 내 SDG에 대한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하였다. 화학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넘어 바이오, 물, 에너지 등의 사업 분야가 다양해졌고, 이해관계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활동의 범위를 SDG와 통합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 관리를 SDG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업 관리방안, 리더십부터 운영부서까지 정책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 실제 에너지·화학기업들의 SDG 적용현황, 기회와 위기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이행틀 개발 등이 과제이며, 이는 가치체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 **맹학균 과장(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우리나라의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이 화학제품은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 또는 화학제품 운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에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으로 2050년에는 100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100억 인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면 누군가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지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기술이 필요한데, 화학산업이 바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녹영 실장(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기업들은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부와 의 소통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만큼은 환경부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영세한 대구 섬유업체(종업원 6명) 사례로서, 유럽 쪽으로 섬유제품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가 어떻게 CSR 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입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업체는 국내 외부 CSR자문을 통하여 기존 불우이웃 지원 등 기존의 활동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 후 전달하여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계약체결을 하였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CSR활동은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SDG 활동도 언어가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했을 경우 기업에 이득이 될 것이다.
- **김중필 책임(LG화학)** 자의든 타의든 기업의 CSR 평가가 언론 등에 노출되면 CSR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CSR 평가기관은 SDG 혹은 경영비전과 연계하여 CSR2020, CSR2030, CSR2050과 실행에 대해 공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한국 기업의 경우 당장 2030년까지 경영비전과 연계한 세부적인 과제조차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나 정부에서 SDG 관련 세부적인 목표가 나와야, 기업이 실제로 이행하고 모니터링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포럼을 시작으로 한국RC협의회와 한국화학산업연합회를 통해 보완이 된다면 화학산업의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Session2

###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분과 주요내용



- **신동일 교수(명지대학교, 분과장)** 위기의 순간에 상생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제는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안데르탈인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열악했던 현행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 긴소리를 내는 유전자를 보유하여 소통을 잘했기 때문인 것과 같이 산업단지 내 화학업체 및 주민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민휴식 팀장(한화토탈)**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었다. 기업도 강화된 법규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환경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기업 및 지역주민 상호 간 이해가 중요하나, 주민들은 화학공장 내 쿨링타워의 수증기를 매연으로 오해하거나, 기업은 공장 내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모르는 등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및 지역주민 상호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사업 활동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공존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얻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우며, 지역사회도 기업의 발전이 없으면 함께 발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과 지역주민은 운영공동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 **정경란 사무국장(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들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발굴하여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특성화된 맞춤형 공헌활동(지역 역량개발, 교육, 홍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해야 한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단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주민과 기업의 갈등의 원인은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통해 걷은 세금을 산업단지 관리감독이나 민원처리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인식들도 많이 있다.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수요 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양측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 **한대호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학산업이 환경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막강한 경쟁력을 갖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도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국민이 건강하고,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기업도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도 필요하며, 이러한 포럼 행사 등을 통해서 기업 간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산업단지가 최초로 조성된 시점부터 몇 십 년 간 축적되어 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있는 모습과 주기적 토론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강성진 팀장(LG화학) 기업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와 같은 사고에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안전분야는 기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또한, LG그룹 신년사에서 환경안전 관련 내용을 반영할 만큼 최근 7~8년 사이에 환경·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산업계와 지역주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활동 대응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합리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강재 사무처장(여수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산단에 대한 주민의식 및 여수산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나, 여수산단에 대한 환경안전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많아진 것으로 보아, 여수산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여수산업단지 내 협의회 활동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정책 등 강력한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하지만, 유엔의 SDG목표 활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환경안전 예방활동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항목	질문	결과
여수산단에 대한 주민의식	여수시의 기업활동 적합도	좋음 44.8% 보통 43.4%
	지역사회와 산단과의 상호 협력 관계	좋음 36.8% 보통 50.1%
	지역 내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매우 그렇다 19.9% 그렇다 56.7%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증설에 대한 인식	좋음 32.3% 보통 38.4%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주민의식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	잘함 42.2% 보통 43.1%
	지역사회 복지향상에의 기여도	잘함 45.7% 보통 42.2%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	지역사회고용 20.8% 지역경제활성화 20.8% 환경안전 개선 18.0% 소외계층지원 12.5%
	여수산단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그렇다 53.6% 보통 32.6%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	여수산단의 환경보전활동	보통 38.7% 문제있음 32.4%
	여수산단의 안전재해 예방활동	보통 39.8% 문제있음 33.2%
	여수산단의 안전사고 발생원인	공장 노후화 33.6% 안전불감증 28.5%
여수산단의 노사관계와 일자리	여수산단의 노사관계	안정적 30% 보통 50.2%
	여수산단의 일자리창출 기여도	긍정적 44.6% 보통 39.6%
	취업 시 여수시민 가점제 운영	긍정적 42.1% 보통 36.5%
지역과 산단의 협력에 필요한 과제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과제	산단의 지역사회 지원 29.4% 여수시의 기업 지원 21.5%
	여수시의 과제	산단지역 투자 촉진 28.5% 시민의 이해와 입장 반영 27.2%

한국RC협의회와 한국화학산업연합회는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을 통해 국내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SDGs 이행 우수사례를 공유 및 취합하여 자료로 제작하고, 화학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SDGs와 연계하여 통계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료를 작성, 이를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위원 및 참가 대상 관련 이해관계자(학계, 전문기관, 지자체, 산업계 등) 규모와 참여를 확대(정부부처, 관련 지자체 등)하는 등 본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Members Focus



## 금호석유화학 | 금호석유화학

### NB라텍스 55만톤 체제 증설 돌입

금호석유화학이 의료용 장갑 등의 원료로 쓰이는 NB라텍스의 생산능력을 키운다. 금호석유화학은 울산고무공장 NB라텍스 생산능력을 기존 연간 40만톤에서 55만톤으로 확대하는 증설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내년 1분기 말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55만톤 체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1위 NB라텍스 메이커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회사 측은 2016년 NB라텍스 생산능력을 기존 연 20만톤의 2배인 연 40만톤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라텍스장갑의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 이번 울산고무공장의 15만톤 증설을 추가 진행을 단행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 NB라텍스 제품의 주요 경쟁사로는 말레이시아의 신토머(Synthomer), 대만의 난텍스(Nantex) 등이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는 얇고 가볍지만 쉽게 파손되지 않는 의료용 장갑의 원료로 쓰인다. 최근 지속적인 물성 개선을 통해 산업용·조리용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 합성라텍스로 제작되는 만큼 천연라텍스 장갑 사용시 우려되는 단백질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기존 제품보다 물성안정성과 인장강도를 향상시켜 더욱 세밀한 작업에도 적합한 NB라텍스 신제품 KNL 834를 개발했다.

라텍스 장갑은 매년 그 수요가 약 10%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영업사무소를 설립하고 시장 확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SKC-미쓰이화학 합작 MCNS, 인도 폴리우레탄 시장 공략 시작

SKC(대표이사: 이완재)와 일본 미쓰이화학(대표이사: 탄노와 츠토무)의 폴리우레탄 합작사 MCNS(Mitsui Chemicals & SKC Polyurethanes Inc.)가 인도 폴리우레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MCNS는 8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Andhra Pradesh) 치투어 디스트릭트(Chittoor District)의 스리 시티(Sri-city)공단에서 시스템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기돈 SKC 사업운영총괄(부사장), ▲요시노 타다시 미쓰이화학 본부장, ▲임의준·시바타 신고 MCNS 공동대표, ▲라빈드라 사나레디(Ravindra Sannareddy) 스리시티공단 이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스템하우스란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등 원료에 첨가제를 혼합해 고객 맞춤형 폴리우레탄 원료(시스템폴리올)를 생산하는 거점이다. MCNS는 지난해 2월 성장성이 높은 인도 폴리우레탄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시스템하우스를 착공했다. 연 생산량은 1.5만톤 가량이다.

인도는 GDP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인구가 13억명으로 내수시장이 탄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폴리우레탄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470만대 수준으로 세계 5번째다. 폴리우레탄이 단열재로 쓰이는 냉장고 생산량은 연간 900만대에 달한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한·일 자동차/가전 제조사가 다수 진출해있는 첸나이 지역 근처다. 한·일 제조사는 인



도 자동차 생산량의 70%, 냉장고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MCNS는 우선 한·일 고객사에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향후 인도 업체로 공급을 확대해나간다. MCNS는 인도 시스템하우스 가동으로 전세계 11곳에 시스템하우스를 운영하게 됐다.



### 국내 최초로 화학기업 종합 순위 '글로벌 톱10' 진입

LG화학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글로벌 화학기업 순위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0위를 기록했다. LG화학은 미국화학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행하는 전문잡지 C&EN(The Chemical & Engineering News)이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의 규모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2017 글로벌 톱(Global TOP) 50'에서 지난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기업 중에선 중국의 시노펙(3위)과 대만의 포모사 플라스틱(6위),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칼(9위)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C&EN은 LG화학에 대해 "배터리 사업 등이 성장세로 연구개발(R&D) 인력을 2020년까지 800명을 늘려 6300명 수준으로 대규모 확대 중"이라며 "중국 화유코발트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수급을 확보하며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청정에너지 '바이오부탄올' 상업화 카운트다운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가 바이오부탄올 실증플랜트를 지난해 말 완공한 이후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설비 최종점검과 각종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며 상업화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바이오부탄올은 폐목재, 볏짚,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포도당과 박테리아로 만드는 탄소가 4개인 알코올 연료이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함께 3대 바이오에너지로 불린다.

기존의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 생산 기술은 옥수수, 사탕수수, 카사바와 같은 식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식량자원을 파괴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 옥수수대, 폐목재와 같은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해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연간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300만톤 가량으로 이를 활용하면 연간 3억 리터의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2007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10년 동안의 연구 끝에 바이오부탄올 양산에 필요한 관련 기술들을 확보하고, 4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여수 제2공장에 바이오부탄올 실증플랜트를 완공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화 테스트를 거치는 실증 사업에 나섰다. GS칼텍스의 실증플랜트는 연간 400톤 규모의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우리가 생산하는 바이오부탄올은 폐목재와 폐농작물을 분쇄한 뒤, 산(酸)과 혼합해 바이오당을 만들고 자체 개발한 고성능 균주가 이를 먹고 배설하는 연속발효·분리정제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며, "기존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가 아닌,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폐목재나 폐농작물 등 바이오매스가 흡수해 생산하는 탄소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ASF** | **바스프**

**네오폴 (Neopor®) 생산 능력 증대**

바스프가 독일 루드빅스하펜과 한국 울산 생산공장에서 친환경 고성능 단열재인 네오폴 (특수 그라파이트인 흑연을 함유한 회색 발포폴리스티렌) 생산능력을 연간 총 4만톤 증가시키며, 이를 위해 2018년 4/4분기까지 각 공장의 모든 조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드빅스하펜 공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정개선 작업을 통해 연간 20만톤의 네오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이와 동시에 발포폴리스티렌(EPS) 연간 총 생산 능력은 2만톤이 증가돼 총 46만톤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백색 스티로폼은 보다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춘 회색 네오폴로 2018년 말까지 모두 전환되어 생산될 예정으로, 이로써 네오폴 생산량은 8.5만톤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스프는 아시아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회색 단열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네오폴은 친환경 효율적인 단열 보드로 가공되어 신축 및 개축 건물의 난방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네오폴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바스프는 1998년 네오폴 출시 이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흑연이 함유된 네오폴 단열 보드는 기존 스티로폼 제품에 비해 우수한 단열 성능을 제공한다. 밀도가 낮은 네오폴은 보다 가벼운 보드로 가공될 수 있어 건축 효율성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원료 사용량 또한 절약할 수 있다.

바스프의 스티레닉 폼 사업부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본부장인 클라우스 리이스(Dr. Klaus Ries) 박사는 “바스프는 기후 보호 및 자원 보존과 관련하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제품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기름 소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5%(독일의 경우 40%)는 건물의 냉난방에 의해 유발된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단열과 함께 최적화된 건축물 설비 및 대체 에너지원의 적절한 사용으로 이 같은 에너지 소비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스프는 1951년 백색 발포 입자로 잘 알려진 스티로폼(Styropor®)을 발명하고 특허를 취득했으며, 1998년에 세계 최초로 흑연을 함유한 회색EPS인 네오폴(Neopor®)을 시장에 출시했다. 회색 플라스틱 입자 네오폴은 백색 플라스틱 입자인 스티로폼에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버전이다. 네오폴은 회색빛을 띠게 하는 흑연을 첨가함으로써 단열성을 20%까지 향상시켰다.

백색에 비해 40%까지 원료 사용량이 감소되며, 이를 통해 단열재 가공사는 낮은 질량으로 단열성능이 보다 향상된 단열 보드를 생산할 수 있다. 네오폴로 가공한 단열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외벽 및 내벽과 편평한 지붕에 사용할 수 있다.

**YNCC** | **여천NCC**

**올레핀 생산시설에 7400억 투자...‘경쟁력 강화’**

여천NCC가 약 7400억원을 들여 제2나프타분해시설(NCC)을 증설하고 신규 부타디엔 (BD)공장을 건설한다. 이번 투자로 여천NCC의 에틸렌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현재보다 33만5000t 많은 228만500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이 회사는 향후 3년간 연인원 1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천NCC는 29일 제2사업장 부지에 있는 에틸렌2공장(NCC No.2)과 방향족2공장(BTX No.2)을 에틸렌 기



준 연 58만t에서 91만5000t으로 33만5000t 증설(Revamp)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하며, 2020년 가을에 상업운전 할 예정이다.

이번 증설로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현 195만t에서 228만5000t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2020년까지 약 14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3만t 규모의 부타디엔(BD)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후 여천NCC에서 생산하는 부타디엔(BD) 생산규모는 연24만t에서 37만t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천NCC 관계자는 “제2나프타분해시설(NCC) 증설(Revamp)과 부타디엔(BD)공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관계사인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에 안정적인 기초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생산량 증대에 따른 원가절감과 에너지효율 증대를 통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등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여천NCC의 연간 직간접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100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 C4유분 고도화 공장 및 2016년 C5유분 고도화 공장을 신규 가동하면서 매년 200명 수준으로 확대됐고, 이번 제2나프타분해시설(NCC) 증설 투자로 장치·계진 설비 및 공사분야 협력업체에서 향후 3년간 연 인원 1000명 수준의 고용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여천NCC는 1999년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간 자율빅딜에 의해 3개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NCC 대표기업이 됐다. 출범 당시 130만t 규모였던 NCC를 현재 195만t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 에틸렌 195만t, 프로필렌 111만t, 부타디엔 24만t, BTX 78만t, 스타이렌모노머 29만t, 이소프렌 3만8000t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LOTTE CHEMICAL** | **롯데케미칼**

**미국 ECC 완공 임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롯데케미칼의 미국 에탄크래커공장(ECC) 막바지 완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장을 배경으로 한 광고 촬영도 마친 상태다. 시장 상황도 우호적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쟁사들보다 2년가량 먼저 에틸렌 생산에 나선 것도 신의 한 수라는 평가다.

지난 9월 15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약 3조 원을 투입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ECC 공장 완공률이 90%를 돌파했으며, 내년 3월 상업가동을 시작한다. 미국 ECC 공장은 국내 화학업체 최초로 북미 셰일 가스를 이용한 에탄크래커 사업 진출을 위한 것으로, 연 100만 톤의 에틸렌과 70만 톤의 에틸렌 글리콜(EG)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즉, ECC는 셰일가스 부산물인 에탄을 원료로 화학 원료 중 하나인 에틸렌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ECC가 유가가 올라 셰일가스의 채산성이 높아져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이 극대화하게 된다. 2015년 미국 공장 결정 후,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에틸렌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의견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루이지애나 공장 기공식 당시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화학회사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정유화학사들은 에틸렌 증설에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제 공장 증설에 나선 상황으로 오는 2020년 이후에나 상업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미국 ECC 공장이 완공되면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4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이 900만 톤임을 고려하면 생산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틸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의 ECC 완공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은 2019년까지 증설로 인한 외형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롯데케미칼이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ECC의 경우 연 매출액 1조 수준에 영업이익률 15~20%가량으로 추정되기에 2019년 증익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다우듀폰**

**천안에 반도체 생산시설 짓는다**

미국의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듀폰이 충남 천안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충청남도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구만섭 천안시 부시장이 전날(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다우듀폰과 특수제품 부문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다우듀폰은 2015년 12월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합병한 글로벌 기업으로, 내년 3개 회사로 분할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한 다우듀폰 특수제품 부문은 내년 4월 분사하는 듀폰이 맡게 된다.

듀폰은 천안외국인투자지역과 천안3산업단지 안에 2023년까지 2만2천여㎡ 규모의 공장을 증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듀폰의 인력과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만명, 210억달러(25조원)에 달한다.

 | **랑세스**

**고성능 플라스틱 생산 능력 강화...獨 공장에 신규 투자**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랑세스가 독일 크레펠트-위어딩겐 공장에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지난 10월 22일 밝혔다. 신규 설비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고성능 플라스틱 폴리아미드 ‘듀레탄’과 PBT ‘포칸’ 생산시설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한상훈 랑세스코리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 이사는 “고성능 플라스틱 비즈니스는 랑세스 성장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이번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랑세스는 전 세계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자로서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크레펠트-위어딩겐 공장은 중합 및 컴파운딩 시설을 갖춘 랑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핵심 생산 거점이다. 올해 3월 새로운 생산설비를 완공, 본격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증설까지 완공되면 세계 시장에 랑세스 고성능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랑세스의 고성능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강성을 발휘하면서도 금속 대비 최대 50%까지 무게 감량이 가능하다. 자동차 업계 주요 화두인 차량 경량화 솔루션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 엔진룸 및 도어 구조물, 프론트 엔드, 페달, 운전석 크로스 멤버 등에 적용되며 차체 중량 절감을 통해 연료 소모량, 배출가스 등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에 고성능 플라스틱 적용이 활발하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나 캐리어, 셀 홀더를 비롯해 각종 센서, 전기 모터 하우징이 대표적인 적용 분야다. 충전기 하우징이나, 스위치, 커넥터 등에도 적용 가능해 충전소와 같은 전동화 이동수단의 기반 시설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 **이수화학**

**LAB·TDM, 세계일류상품 선정**

이수화학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LAB(Linear Alkyl Benzene)와 TDM(Tertiary Dodecyl Mercaptan)이 KOTRA가 선정하는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1월 23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국내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을 보유한 상품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계 시장 규모가 5000만달러(한화 약 570억원) 이상이거나 500만달러(57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제품이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은 LAB와 TDM이다. 세탁용 분말세제 및 액체 세제의 원료인 LAB는 이수화학이 세계 시장에서 6.5% 점유율로 업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분자량 조절제, 극압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TDM은 1997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수화학이 1997년 세계 3번째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국내·외 판매를 확대한 결과 아케마(Arkema), 쉘브론필립스케미컬(CP Chem)과 함께 세계 3대 제조업체로 거듭났다.

류승호 대표이사는 “이번 세계일류 상품 선정으로 이수화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며 “특수화학 제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 시장 공략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동서석유화학**

**‘2018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시상식’ 장관표창 수상**

동서석유화학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인도, 터키시장을 주력적으로 공략해 매출 증대와 터키시장 신규 수출 달성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업인,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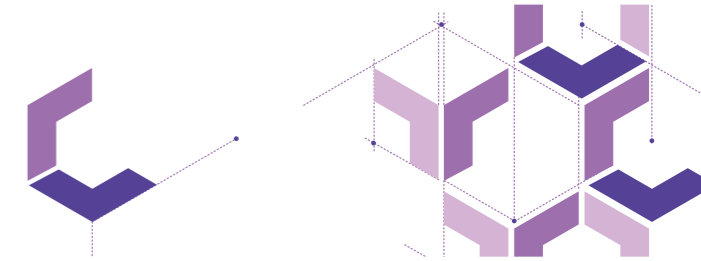
이날 FTA를 활용해 수출증대 및 수출선 다변화 등의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및 임직원과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 애로 해소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FTA 활용 유관·지원기관 및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행사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대학생을 포상·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협정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장관표창 수상기업 가운데 동서석유화학은 주력제품인 기초화학물의 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 일환으로 FTA 체결국인 인도와 터키를 집중 공략해 인도 수출액이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40% 증가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터키시장 신규진출에도 성공했다. 🌱



ISSUE NO. 41 NEWS



2018년 제2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8년 6월 26일(화) 한국RC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박인 실행위원장(LG화학 상무) 등 회원사 8개사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RC사무국에서는 RC 체크리스트 작성 검토경과, RC체크리스트 활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RC 체크리스트는 RC코드 평가를 개발을 통한 3차 검증 대비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작성을 추진해 왔다. 완성된 RC체크리스트는 책자로 약 200부를 제작하여, 53개 RC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아울러 체크리스트 활용제고를 위해 RC협의회 홈페이지 체크리스트 섹션의 게시판을 신설하여, 개별 회원사에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피드백 전달기능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개최

'2018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은 서산(9.1), 울산(9.8), 여수(9.15)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학생들에게 화학 '체험활동'과 '놀이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화학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화학 산업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서산, 울산, 여수 지역 약 164개 초등학교에서 90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오프닝 공연은 우리 주변의 화학제품 소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샌드아트로 표현하여 참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화학산업이 없었다면 우리생활은 원시시대와 같았을 것이며, 앞으로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화학산업을 역할을 소개하였다. 행사 후 학생들이 평소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과 신기한 화학 실험을 직접 보고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다수



**산업계 (KRCC 22개 회원사)**  
**플래티넘.** 동서석유화학,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LG화학, 여천NCC, 한화토탈  
**골드.**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 두폰코리아, 동우화인켐, 롯데첨단소재, 한국바스프  
**실버.** 롯데엠시사, 삼남석유화학, 애경유화, 에보닉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SKC, LG MMA, 코베스트로코리아, 코오롱인더스트리

**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전남여수시청 / 충남서산시청 울산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충남서산교육지원청 / 한국석유화학협회

**학계 (3개 지역 교사단체)**  
 전남지역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충남지역 (서산과학정보교육내실화지원단)  
 울산지역 (울산과학교육연구회)

표현하였다. 특히, 회원사 52명이 조인솔 봉사자로 참여하여 조별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하였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2018년 APRO(Asia Pacific RC Organization) Meeting 참가

2018년 APRO Meeting이 2018년 7월 19일(목) 필리핀 Dusit Thani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APRO 회장인 Mr. Sohei Morita(JCIA, 일본화학협회)를 비롯하여 APRO 회원국 담당자 20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ICCA(사회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보고서 및 2018년 Joint Capacity Building 소개, CPCIF(China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Federation) APRO회원국 초대 여부, 2019년 차기 APRCC 개최지가 논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차기(제16회) APRCC는 1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다가오는 2019년은 한국RC협의회 창립 20주년으로, APRCC개최가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8년 11월 13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화학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1부 지속가능발전분과에서는 맹학균 과장(환경부) 지속가능성의 시대, 화학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녹영 실장(대한상의)-최근 지속가능 동향과 산업계 대응, 김종필 책임(LG화학) - LG화학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재혁 교수(고려대) 분과위원장과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패널 : 맹학균 과장(환경부), 김녹영 실장(지속가능경영원), 박백수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필 책임(LG화학), 이은경 팀장(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분과에서는 강성진 팀장(LG화학)-화학업계 환경안전 지구 노력 현황 및 약취개선 사례, 이강재 사무처장(여수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역사회 공감대형성을 위한 지역 내 활동현황 및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신동일 교수(명지대) 분과위원장과 이해관계자 간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패널토의를 진행하였다. (패널 : 민휴식 팀장(한화토탈), 정경란 국장(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성진 팀장(LG화학), 이강재 사무처장(여수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대호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SSUE NO. 41 **NEWS**

■ 2018년 제3차 실행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8년 11월 22일(목) 제주 라마다호텔 아라홀에서 실행위원 및 RC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대림산업 김충식 차장이 정기보수 안전관리 사례발표를 하였고, RC 체크리스트 활용계획을 검토하였다. 현재 사무국에서는 RC협의회 홈페이지(www.krcc.or.kr)에 작성된 체크리스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회원사에서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운 가능하고 변동사항 반영 등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다. 향후 사무국에서 취합된 의견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회원사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사례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8 KRCC 연례워크숍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18년 11월 22일(목)~23일(금) 제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2018 KRCC 연례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례워크숍에서는 한국RC협회 채종경 회장을 비롯하여 28개 회원사 54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선진 SHE 문화 구축 성공사례(울산대학교 박현철 교수(RC 자문위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외부강연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직급 간 소통방법(제이라이프스쿨 이민호 대표)과 환경안전 우수사례 (①윤병운 부장(듀폰코리아)-듀폰의 핵심가치와 안전문화, ②강재구 과장(한국바스프)-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③염명수 대표(아이엔엑스)-안전디자인의 이해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 2018년 하반기 CP&H 및 RC 리더십그룹 Meeting 참가

세계 화학물질정책·보건 및 RC 관련 주요현안 논의를 목적으로 국제화학단체협의회 (ICCA) CP&H 및 RC리더십그룹 회의(동시 개최)가 2018년 11월 27일(화)~30일(금)에 뉴질랜드 로터루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RCLG 회장인 Mr. Baudouin Kelecom (ExxonMobil)를 비롯하여 회원국 담당자 46명이 참석하였다. CP&H (Chemical Policy & Health) 리더십그룹 회의에서는 Sustainability TF 수행 주요 업무, End Plastics Waste 계획 소개, ICCA-UN환경 MOU 및 활동현황, 2020년 이후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ICCA 사회·경제적 분석 등을 논의하였고, RC 리더십그룹 회의에서는 RC 글로벌 현장(선언문) 국별 이행 현황, KPI 지표 보고, 유럽화학산업연합회(Cefic)의 Rejuvenation 프로젝트 사례, Joint Capacity Building 및 지속가능 프로그램 소개 등이 논의되었다.



2019년  
한국RC협의회  
주요 행사안내

- 2019 제1회 이사회 및 제20기 정기총회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 11:00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 2019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 Meeting  
일시 : 2019년 5월 7일(화)~8일(수)  
장소 :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 2019 제2회 이사회(운동모임)  
일시 : 2019년 6월 1일(토)  
장소 : 미정
- 2019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일시 : 2019년 8월 31일(토), 9월 8일(토), 9월 21일(토)  
장소 : 서산, 울산, 여수
- 2019 APRCC(Asia-Pacific RC Conference) 개최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8일(금)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Members



## 일 반 회 원

- (주)공리양행
- 금호석유화학(주)
- 금호피앤비화학(주)
- 대림산업(주)
- 대성산업가스(주)
- 대한유화(주)
- 동서석유화학(주)
- 동우화인켐(주)
- 듀폰코리아(주)
- 랑세스코리아(유)
- 롯데비피화학(주)
- 롯데엠시시(주)
- 롯데정밀화학(주)
- 롯데첨단소재(주)
- 롯데케미칼(주)
- 머크 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
- (주)아케마
- 애경유화(주)
- (주)에보닉코리아
- (주)SH에너지화학
- SKC(주)

- SK종합화학(주)
- 에어리퀴드코리아(주)
- 엑셀타코팅시스템즈코리아(유)
- LG MMA(주)
- (주)LG화학
- 여천NCC(주)
- OCI(주)
- 용산화학(주)
- 이수화학(주)
-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
- 인피니움코리아
- GS칼텍스(주)
- (주)카프로
- 케이알코폴리머(주)
- KPX케미칼(주)
- 코베스트로코리아(주)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태광산업(주)
- 폴리미래(주)
- 한국다우케미칼(주)
- 한국다우코닝(주)
- 한국바스프(주)

- 한국알콜산업(주)
- 한국ASK케미칼즈(주)
-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
- 한국트린지오(유)
- (주)한수
- (주)한주
- 한화케미칼(주)
- 한화토탈(주)
- 효성화학(주)

## 준 회 원

- 대한석유협회
-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
- 한국비료공업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추후 안내예정이나,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9 제1회 이사회 및 제20기 정기총회' 개최 안내

한국RC협회의 2018년도 추진 사업실적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을 보고 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2019년 제1회 이사회 및 제20기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셔서 화학 산업이 전개하는 Responsible Care의 추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2월 14일(목) 11:00~13:00  
 장소. 웨스틴 조선호텔  
 대상. 회원사 CEO, 임직원 및 코디네이터

